

보도시점 2026. 8. 12.(수) 배포 즉시

고용노동부는 ^{가칭}「메가특구특별법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12.(수) 한겨레, “더 심해진 ‘기간제 굴레’ 4년 특례 땀 확산 우려”,
“메가특구 기간제 4년 허용땀 ‘정규직 필요없다’ 신호 주는 꼴”

2. 설명 내용

- 보도에서 언급한 ‘기간제 근로자 고용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’(2024년)는
현행 기간제법 시행 이후의 기간제 노동시장 실태를 분석한 것임
- * 주요 내용: 한국노동패널조사(KLIPS) 분석 결과, 정규직 전환율 감소, 첫직장
고용형태에 따른 생애소득 격차 확대, 근속 2년 후 고용 단절 발생
- 다만 동 연구용역은 지역이나 업종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것은 아니라
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
- 한편, ^{가칭}「메가특구특별법」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며, 정부는
노사 등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
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임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고용차별개선과	책임자	과 장	이태훈 (044-202-7570)
		담당자	사무관	허진영 (044-202-7517)